

불교대학 교육과정 체계화



2009년 (사)불다클럽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현수언 前 학장(사진 오른쪽)



서예전을 열기도 한 현 前 학장은 서예에 조예가 깊다.



불교대학 수계식서 연비를 해주고 있는 현수언 前 학장



현 前 학장은 2005년부터 제주를 찾은 신혼부부에게 가훈을 써주고 있다.

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또 현 前 학장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설악산 오세암·봉정암 성지순례를 교과과정에 편입했다. 이는 재학생들의 불심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톡톡히 하며 많은 때는 200여명이 동참할 정도다. 덕분에 예기치 않은 효과까지 생겼다. 설악산-봉정암 순례가 인기 코스로 자리잡으면서 등문과 재학생들이 봉정암의 ‘깎깎고개’를 넘기 위한 예행연습으로 한라산을 함께 오르며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것이다.

도민들에게 불법의 징검다리 놓아줘

이처럼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현 전 학장은 제주를 불심의 땅으로 더욱 공고히 다졌다. 그는 지난 2009년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사)불다클럽에서 제정한 ‘불다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주도민들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불법의 징검다리를 놓아준 것이다.
 현 前 학장은 재학생들의 신심 구축뿐 아니라 사경의 생활화 확산에도 몸소 노력했다. 노트형 사경집을 직접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기존 사경집은 금강경과 법화경 등 경전별로 글자 위에 베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100장 분량의 백지에 줄만 그려진 노트 형태로 사경집을 제작해 자신의 근기에 맞게 사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날잡의 사경지는 사경 후 부처님께 봉안하거나 집에 보관하면서 분실되는 경우를 쉽게 보았기 때문에 정돈된 형태의 사경노트를 통해 부처님법을 정성스럽게 써 가보도록 몰려주는 사경운동도 함께 펼쳐보고 싶었어요.”
 현 前 학장에게 서예는 사경과 더불어 또 다른 수행의 한 방편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불교대학 강의가 없는 날이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곳곳에서 휘호를 무료로 써주고 있다. 장소는 주로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인 산방산과 천지연 폭포, 이충섬 거리 등이다. 그는 신혼부부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며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휘호 선물을 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2천여 부부에게 글을 써 주었다는 현 前 학장은 “관광객들로부터 듣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미묘한 공양구가 되어 신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돕는 포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지난 2013년 학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서예인으로, 포교사로, 불자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현 前 학장은 “서예를 통해 사경에 주력할 것이고, 부처님의 교리를 꿰뚫는 불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매년 입춘이 돌아오면 손수 먹을 갈고 화선지를 접고 입춘글을 받아볼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새해를 축원하는 글을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새해 축원을 담은 입춘글을 전한다. 이러한 현 학장의 입춘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주 너머까지 퍼져있다.
 “전남 불심사 주지 스님은 매년 불자들에게 나눠줄 입춘첩을 부탁해요. 불심사 불자들은 집안에 그 글을 걸어두고 한해를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려는 마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 인연이 깊어져 불심사 수계식에는 인쇄된 수계첩 대신 제가 직접 쓴 수계첩을 준다고 들었어요. 범명을 받은 불자들은 수계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고 말하더군요. 부끄럽지만 가장 뜻 깊은 일이지요.”
 그 인연이 닿아 현재 현 前 학장은 불심사 무장포불교대학 학장 소임을 맡는 등 인재발사와 끊을 수 없는 고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조계종단에 116개 불교대학이 있지만 재가불자가 학장을 하는 경우는 서귀포불교대학이 유일한 곳이다. 더욱이 입학생이 적체되는 등의 성공사례는 보기 드물다.
 이처럼 서귀포불교대학이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꼭 가고 싶은 명문불교대학으로 부상하게 된 데는 현 前 학장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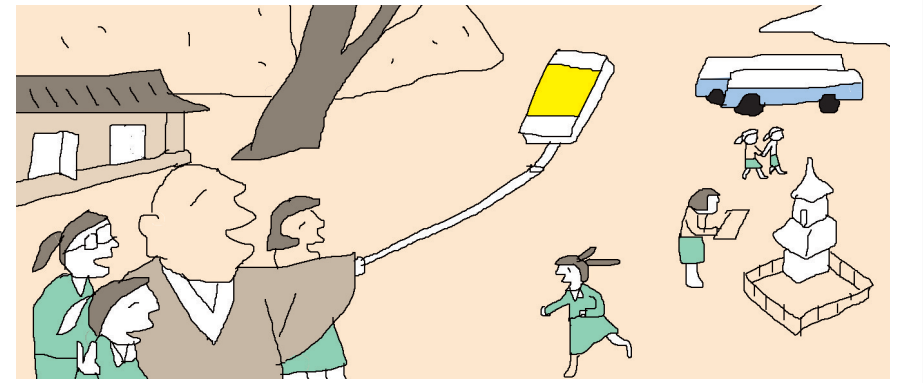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전법일기

스님은 왜 화를 안 내세요?

백양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본사급 사찰에서는 해마다 학생들의 방학에 맞춰 수련회를 진행한다.
 자발적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 수련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반발심이 무척 강하다. 더구나 그런 학생들은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과 서로 결속하여 따로 무리 지어 행동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오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입재식을 하기도 전에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여중생 네 명이 지급받은 수련복을 품에 안고 창가에 흠여져 앉아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첫 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날 새벽이 되어 아이들을 깨우려 갔다.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놔두면 끝까지 일어나지 않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수련회를 할 때는 늘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깨워야 한다. 아나나 다들까 그 네 명의 여중생들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자 아이들은 집에서 이 시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더욱 완강하게 이불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나도 지지않고 여기는 집이 아니라 절이기 때문에 이곳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득해서 결국 모든 아이들이 다 깨웠다.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날 아침에는 첫 날 보다는 덜 힘들어서 아이들을 깨웠고, 마지막 날에는 산



그림·박구원

각각 엄마와 함께 온 네 명의 여중생들이 똑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수련회에 참석한 것이었다. 더구나 사찰수련회를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기 때문에 그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한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나는 이왕에 왔으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친구도 사귀는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설득했다. 이미 경험이 있어서 알아서 척척 수련복도 갈아입고 처음 만난 또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너희들도 저 아이들처럼 하면 어려운 것이 없다고 달래고 또 달래주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던 아이도 너를 보내면 모두 다 돌려줄게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체면한 듯 지급받은 수련복으로 갈아입었다.
 우여곡절 끝에 입재식을 마치고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려했던 대로 네 명의 여중생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맨 뒤에서 따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동변상련이라고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했기에 네 명은 서로 금방 친해졌다.

행을 하며 카메라를 들이대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 찍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모여들기도 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수박과 차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차담을 나누었다. 아이들에게 소감을 묻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늘 왔던 출가 이유와 삭발을 하는 이유가 어김없이 나왔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던 네 명의 여중생 가운데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스님은 왜 화를 안 내세요?” 그 학생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심할 정도로 일부러 짜증을 냈다고 고백했다. 내가 화를 내면 그걸 핑계 삼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화내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스님도 너희들과 같은 나이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속을 많이 태웠단다. 그래서 그때의 잘못을 되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 화를 낼 수가 없었어. 해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아직도 되돌려 받아야 되나봐. 하하”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謹賀新年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www.withbuddha.co.kr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